

사설

교회 인구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 현재 인구통계를 4,613만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세계인구 60억 5,671만명의 0.76%로 26위를 차지하며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지난 5년동안 27% 증가했고 노령화 지수는 25.8%에서 35%로 높아졌다. 노령화 지수가 30%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인구 100명 당, 65세이상 고령인구 35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매년 증가하는 노령과 인구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개설하고 여가활동, 급식, 관광 등 소규모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는 수준의 대책이 전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노령인구 중에 상당수는 건강과 경제력, 지식, 경험 등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노령화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정신적인 노령화에 있다. 경로당에서 장기, 바둑, 그리고 최두놀이, 읍주로 소일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라던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고령

화는 곧 교회의 인구의 고령화로 통한다. 70세의 장년인 교회 장로직에 조기퇴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말년을 좀더 편안하게 보내려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고령은 일반 사회나 직장인 고령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음지역은 죽음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서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전도사역을 모든 역량을 두루 갖춘 노령기에 수습해 더 매진해야 한다. 장로직에서 6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것보다 60세 이전에 은퇴하고 한평생보다 더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장로직에 앉아 교회 정책을 다루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젊은 전도 영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아 마지막 마음을 다잡고 감시해야 하며 모든 교인들은 고령을 평계삼지 말고 복음전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혜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든 사회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운동에 동참을...

매마른 대지위에 한 줄기의 비소식보다 더 반가운 희소식이 있다. 한국 홀리클럽 전국연합회의 서울본부 오름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 불치병에 걸려 버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구밀집이 심한 지역일수록 부정부패, 범죄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작은 도시나 농촌은 범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병폐지수가 높은 서울에서 '거룩한'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라와 시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운동이 서울에서 전국 도시, 세계를 향해 펼쳐질 것이다.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홀리'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도시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45년 이전 한국교회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미션우상 타파에 앞장서 기독교신앙 정신으로 나라를 재건하였던 목장장려운동을 통해 피폐해진 국민경제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가

르침에 따라 이타적인 삶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우리 사회는 병들고 썩어가는 데 그쳐서 함께 사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해수의 염도는 4%정도이지만 바다는 썩지 않고 살아있다. 한국교회는 고속성장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와 사회가 병들고 썩어갔다면 교회는 예외라고 변명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데 교회와 기독교인들 바로 세우고 어지러운 사회를 회복하려는 열정으로 결집하여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미래가 밝은 도시에 밝은 빛으로 교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한국 홀리클럽은 도시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바로 세우려는 운동이다.

Holy Club은 도시를 살리는 운동이라서 교단주의처럼 클럽운동체만을 살리는 운동이 되어 '홀리'를 외치시지 않고 우리 사회에 새 희망을 안겨주는 진정한 홀리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교내소식

- ◆ 남천교회교회(유진형 담임목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오월기도원에서 "2001야외대성"을 실시했으며 주축절을 기념으로 42개 가정에 쌀 20kg씩을 구제하고 요양원, 보육원, 재활원 등 7개 기관에 특별헌금 280만원을 지원했다.
- ◆ 소양성교회(이원호 담임목사)는 10월 22일(월)부터 11월 5일까지 특별예배기도회를 실시한다. ☎ 253-2004
- ◆ 춘천제일장로교회(백성호 담임목사)는 10월 20일(토)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강연회와 성경교사 및 찬양강연대회를 개최하며 25일(목) 컨시도, 원로회 회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 ◆ 춘천중앙성교회(윤철중 담임목사)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4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경의 오보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주제로 열린다. ☎ 256-3537
- ◆ 사람중앙성교회(최상도 담임목사) 결혼예배교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 ◆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수 담임목사)는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 청림 100주년 성전봉헌 기념 CBS공개방송 전교인 찬양콘서트를 가졌다. 20일(토)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실내악, 클라리넷 독주, 성악 등으로 구성된 '청년클래식연주회'를 연다.

홍천교계소식

- 홍천군 신우회 정오기도회
홍천군 신우회(회장 김창재, 홍천군의회사무과장)는 10월 10일 낮 12시에 홍천읍내 주공가든에서 홍천읍 연봉리 소재 은평교회 담임 홍병표 목사님을 초청 정오 기도회를 드리고 함께 애잔을 나누었다.
- 홍천서지방 교사대학 열려
홍천서지방(감리사:만민교회 양명환목사)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홍천감리교회에서 교사대학을 열었다.
- 홍천서지방 연합부흥성회
홍천서지방(감리사:만민교회 양명환목사) 선교부에서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천감리교회(담임목사:권오현목사)에서 대진 유심지방 사당교회에 사무하는 윤석필 목사를 초청하여 연합성회를 갖는다.

예수전도단 화요일 모임 장소 이전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매주 화요일, 예수전도단 춘천지부에서 주최하는 "화요일"은 지난 9월부터 예장교회에서 동부교회로 장소를 옮겨 열리고 있다. 전심으로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찬양과 중보기도와 헌전과 이 나라, 일방을 섬기는 좋은 시간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춘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역사속에 나오는 장엄치림의 영광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것을 기도하고 있다. 열정과 헌신과 나눔과 기도가 바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TEL. 252-1128 정경자 간사

manna

겸손이란, 마음의 완전한 교화함입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겸손이란, 결코 초조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슬피하지 않으며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댓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놀라워하지 아니 합니다. 겸손이란, 아무도 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꾸밈을 들을 때 나의 욕을 먹을 때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 나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 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품속에서 축복받는 따사로움과 기쁨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세 사람이 걱정으로 파지 있을 때 깊은 바다 속과 같은 그런 평화 속에 나를 잠기게 하고 또 머물러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춘천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10월 30일 (목요일) 12:00(예배)~12:30(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정경오목사(CCC 대표목사) 시와: 안나: 춘천제일장로교회
기도: 특송: 인공통신선언회목자장교회

춘천기독교직장인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진상용 033-250-7110
2000~2001년 연회회비납부: 조흥은행 515-04-574117 예금주: 연영자

WORLD

■ 세계교회 성장 전략으로서의 통신망

"교회들은 점점 더 크게 건물은 짓는 것을 멈추고 통신망을 활용해야 한다." "통신망(방송)이아닐로 다음 세대를 복음화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교회성장운동을 주도하는 대표들은 말한다. 주요한 전략 중 하나는 좀더 지능 있는 가정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멈추고 대신 신교회는 대물질을 투자해야 한다. 큰 건물은 매년 20,000명의 새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방송을 통해 교회 밖에서 연결되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배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물은 짓는데 계속 돈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바닥이 없는 구멍장리 기기에겐 결코 충분한 물질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어떨지 알 수 없다. 또한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가득차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것이다.

■ 심대들에게 유익한 기독교

2001년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성서학회에서 출간된 연구서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심대들이 미래의 그라지 않은 아이들 보다 행복해 한다고 한다. 이 연구서는 교회 성장정책으로 심대들에게 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시건 대학에서 행해진 8학년 대상의 연구도 크리스찬 심대들이 스스로에 대한 4개의 모든 평가 영역에서 더 높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이 연구를 수행한 성리학자인 "트레카 쿨만"은 말한다. "부모에 대한 권위존중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종교적 가치로 쌓인 인식기반은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토대가 견고할수록 더 높은 자존감이 더 일찍 형성되고 강한 내력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대항할 준비가 잘 되어있다."라고 연구서는 쓰고 있다.

■ 이라크 어린이 50만 사망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라크에서 지난 10년 동안 경제제재로 인해 129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 가운데 52만 명은 어린이들이며 유년 경제제재 전에 1천명당 42명인 유아 사망률이 1천명당 10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라크 관련 INA 문헌은 "유년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식량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약 50만 명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업을 포기한 채 문맹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와중에 이라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의 교회에 대해 의약품과 지원하는 한편 문맹에 이르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구호품을 모으는 의약품 구입에 이라크의 교회를 통해 이라크에 분배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여론들의 식해 14개 민간(정교회와 카톨릭 포함)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교회는 그 인내로 고난중에도 운영되고 있다.

■ 서유럽, 종교 귀의하는 사람 늘어난다

최근 기독교가 죽었다는 평가를 들은 서유럽에서 새로운 부흥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 '에큐메니칼 뉴스'는 최근에 행해진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고했는데 대도시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와 교인의 감소 추세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현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부뤼셀의 경우 자신이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사람은 10년 전의 48%에서 현재는 59%로 늘어났다. 비엔나 대학에서 사회학과 목회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줄레너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현상이며, 교회는 이러한 도시민들의 정신적 공허감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적인 공허감을 해소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함께 도시인 특유의 개인주의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방식의 접근으로는 이들과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Mission Network News
World Mission Daily

춘천성시회를 위한 기도모임에 참여하신 목회자

날 짜	설교 & 간증	날 짜	설교 & 간증
8/16	언기훈 목사(남대교회)	9/20	김태민 목사(봉곡교회)
8/23	정재호 목사(남대교회)	9/27	송교익 목사(호남교회)
8/30	임경호 목사(강변교회)	10/4	김재현 목사(석사교회)
9/13	박종익 목사(주한장로교회)	10/11	박영진 목사(방주교회)

매주 참여하시는 목회자: 박성철 목사, 제일성교회, 신성관 목사(열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화감리교회

담임목사 한 군

선교사 김 상 업

장 로 김동일 장석신 김현배 김홍식 신 연 오문식 민경옥

200-853 춘천시 동면 장악리 791-1번지(후평동 시내버스 종점 앞)
TEL. 교회사무실 241-5621 FAX. 241-5622 / 목사관 255-8525

춘천 성시화를 위한 연합 선교대회

춘천을 밍들, 소망, 사랑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자

- 기 간: 2001년 10월 28일(주일) ~ 10월 31일(수) 4일간
- 장 소: 저녁 김파-호반재교회(석사교회) / 낮 새비 김파-석사교회
- 강 사: 기독교 목사(서울 임파루교회) 및
- 목적 및 취지
▷ 기도, 봉사와 찬양, 능력이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로
▷ 춘천시민 한자람을 지킴지 못하도록 기독교인의 연합한 기도와 홍보, 전도 운동을 전개
▷ 이 교단에서 미션 우상을 따피하고 죄악을 쫓아내는 어능의 세력을 물리치는 평화운동을 전개
▷ 국제 분위의 연합부흥회를 개최함으로 심사와 운동의 불을 붙이고자 함.

■ 대회 조직

- 대회교문: 박원희 경원회 김은일 김은영 이만선 여은애
- 지도위원
(목)임재홍 춘천총회 김광국 황영찬 차진석 권오수 노정환 이영호 김영민 유진형
임대집 최준택 임선영 박성호 방지산 이원호 권두환 정상교 김유식 서영호
(장)한석기 이영일 백준선 한석용 이광훈 유태희 허종구 배제길 허 진 김경하 최종민
- 대회장-김 주현 ● 부대회장- (목)김장수 (장)박성애
- 준비위원장-김 창환 준비부위원장-피호중
- 총무-이 학규 (부)장준을 김부희 이효진 김남길 김윤환 허광용
- 전담위원장-윤 교식 (부)이은준 김용배 정진관
- 통원위원장-오승룡(가정) (부)한수희
(목사)이원복(동) 송용석(서) 양기태(남) 김홍철(북) 천진구(동) 김승걸(합)

김지홍(기) 전영준(보) 박익수(대) 최준배(기) 송종익(개) 지용찬(기) 이준주(개) 권기호(고) 조영준(진) 김병준(순) 최민준(예) 하기철(순) 정원화(기) 박원현(예) 조영호(고) 유학원(구) 공명연단곡목

(장)이원철 이원철 이무식 상낙준 김용준 마칠규 김태권 유길주 박한범 김성옥 임영일

●전도팀장-정 경호 (부)조은제 임기훈 구영목 김복록 김바울 홍성민 김영자 기정희
●교육팀장-황 병호 (부)이원철 이대훈 유근중 김원형 박재훈 신상관 임진섭 박승민

●섬유팀장-서 공성 (부)박우일 이원식 민영범 이영규 하계진
●홍보·촬영팀장-박 영진 (부)조종환 허 광 도민일보기자 전정일 고길화 시대식

●음악팀장-한 군 (부)조종록 김철주 구 교희전양대치휘자
●재정팀장(현금위원)리-김 동 회 (부)김동진 최준민 홍성민 이영규 김주국
조영일 홍재희 김명필 신종필 김원호

●음향·시설팀장-최 해수 (부)김진관 지형진 임은숙 황철집
●안내팀장-최현욱 (부)김기태 이은희 전신호 이영규 임영철

●차량동원팀장-하기철 (부)장기호 한익동 강철주 장병식 남궁수명
●교통팀장-박 인 권 (부)김관구 현재민 최은식 최동규 박광희 윤동태 김정현

●집대위원-장인국 (부)오은민 신자서 정혜숙 이윤숙 이영숙
●특별기도팀장-박 성 철 (부)신상관 지용환 배석일 김남환 이성진 석정기 김홍준 이은일 이준주 김병배 조종환 최상도 이은주 황병호 유근중 김성옥 이학규 허종구 조은제 김동일 명영을 홍성민 김용배 민영범 허광용 김명필 신종필 김원호 전진일 홍성민 기정희 신영록 김경자

■ 주 초: 춘천기독교인연합회
■ 힘 초: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춘천기독교교로연합회, 성서회운동본부, 강원일보사, 강원도민일보, CBS춘천기독교방송, 춘천성시신문.

성서화 사명으로 결집한 춘천기독교연합회

- 김주환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하나된 연합을 소망하고 회원들에게 진정하는 연합으로 성서화에 매진해 당부했다. 임기 중 연합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성서화 기반을 조성했다 -



김주환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추진위원장

1년이란 세월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이란 어찌된 내 생애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갑작스런 감투를 쓰면서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격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의 성리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자존심이 새끼로 두번에가라면서 서로를 각자 성직자라는 것 같고 자신은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강요하듯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뒷자리를 더 선호하고 시간낭비를 막아주려서 간섭하는 분들이 회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말이 남의 이야기 아닌 나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연합회 회의를 해도 잘 모이지도 않았고 연합회 제정도 기실만한 작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강도님들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며, 운영을 하려면 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제정을 출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작년 성탄절 저녁 시간에 시내 각 교단별로 원로급에 속한 목사님 25분을 시내 유망목회로 만찬에 초대하여 사비로 대접을 하고 기독교연합회 운영에 대한 금년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으며 회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연합회 운영을 위해 회비를 책정하여(5만원부터 1만원까지 자유로) 주시기를 강요드렸더니 대부분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동의를 주셨고 협조해 주셨기에 만족스럽기는 못하지만 회비도 많이 이루어졌고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월 10만원의 회비를 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회비



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회 형편대로 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나 할 금액을 내 주셨으면 연합회들이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여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마지막 행사인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춘천호반내세육관에서 춘천성서화를 위한 대진대회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을 임마누엘교회로 김국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사회, 기도, 찬양, 안배, 헌금, 예배찬송 등)를 교단별로 맡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전도지를 공동제작하여 전도의 날로 삼고 전 춘천시내에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축복 및 노방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국 최초로 29년 전에 성서운동을 시작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중시하였으면 합니다. 결코 이것은 외면해서는 안 될 목회자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서운동에 참여도 하고 협력도 하며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충구스런게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성서운동을 위하여 크게 협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기독교연합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성서운동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재정원리가 허락되면 운영합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들과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회원 여러분과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건현황: 춘천기독교연합회(춘천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모저모

- 10월 22일 봉헌하는 춘천중앙감리교회 -

춘천시 육천동 73번지에서 회계제 202번지로 이전하여 새로 건축한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위용과 실상(實相)을 소개하며 교회창립 역사를 조명해본다. 1902년 순회(巡迴) 전도자 김기순(金基淳)이 춘천을 전도대상지로 삼고교단 그해 10월 30일 경기도 장단고량로 사람 이덕수(李德壽)씨가 전도사로 파송되어 봉의동에 초가 5칸을 사서 예배처소로 정하여 춘천 최초의 교회를 창립한 후 추양동에 48칸 합식집사로 이전하여 예배드리던중 1950년 6.25사변으로 불타버려 춘천동의 미국산신교부 병인 건물을 개축하여 1971년 최현형 아로모도형의 예배당 245평을 건립하여 30년을 가리잡고 있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교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하기로 하여 1차 사업으로 예배당 분당 2,000평을 2001년 6월 준공하였다. 2차사업으로 교회창립 100년이 되는 내년에 선교교육관 1,000평을 건립함으로 명실공히 100주년기념교회를 사업의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 봉헌하는 예배당의 특징은 입아와 대지 1만6천여평에 면적 2천평의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5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넓은 주차장과 아름답게 가꾼 시원한 조경이, 넓은 광장과 우뚝 솟은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지하 2층은 기계공조실, 지하 1층에는 400명을 수용하는 대관실(식당)과 개인기도실, 전신실, 방송실, 합동기도실과 결혼패설과 주방이 있으며 1층은 30평의 넓은 로비와 친교실, 세선자실, 기회원전교회 교회사무실, 덕수홀(소매매설 : 초대 담임자의 이름을 따서 덕수홀로 장려되었음)이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엘리베이터를 마련하였고 2층, 3층, 4층은 대예배실로 개인용 안락의자와 세미나실 의자를 마련하였다. 유아실과 영아실에는 어린이를 위한 침대와 화장실을 두었고 4층 공간에는 역사전시실과 휴식공간을 배치하여 춘천시의 진경을 볼 수 있게 하였다. 4층 내부에는 주조정실과 동서통역실이 있어 국제화에 부응도록 하였고 설교하는 강단의 높이를 낮추고 넓게 하여 세대의 문화를 감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열린교회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로 건축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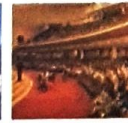


서력) 한국시교고시협회 초대장, 심사위원, 명필상 수상 / 강원도교민회 추천가장, 초대장자 역임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심사위원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협회 초대장자 / 강원서예대전 초대장자,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 한일 친선교구전, 한중교구전, 한중교구전 4개국전 / 강원시예상, 국제예술상, 국민훈장 수상 등 다수.

갈래 이만전 선생은 555주년 한글날을 기념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과학적인 한글의 미감에 매료되어 평생도록 연구해 온 한글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전을 가졌다. 성서신론 제호를 쓴 그는 올해 교회를 맺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서도에 정진, 서세연구와 참신한 구상에 몰입하고 후학 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다. 특히 앞으로 세워질 선교교육관과 분당지의 준에는 높은 종탑과 십자가를 세워 밑에서 위로 오아올리는 전광으로 춘천 곳곳에서 온갖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내년(2002년) 10월에 맞이하는 교회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매월 특색있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있는 교회로서의 몫을 다하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실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 100주년기념교회추진위원회 김기태 전무)



성서만평
"어제까지의 성서만평을 위한 기도"라는 말을 오늘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것이다.
김영명 강원도청신교회(강원도신학교원장)

◇ 지식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한국형 바이오벤처 춘천건설 ◇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Bio 벤처기업 성장보육센터

농업구조 개선을 선도하는 제4의 물결 바이오산업!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 및 고용인구 증대!
지역 농산물을 소재로한 연구개발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영농산업 기반확립!

● 건립개요 ●

- 위 치: 춘천시 후평동 198-60번지
- 부지면적: 10,672㎡ (3,228평)
- 건축규모: 6,822㎡ (2,100평)
- 지하 1 - 지상 3층
- (기밀생산실, 공동생산·유통지원실)
- 사업비: 209억원
- (전담비 139억원, 장비비 70억원)
- 공사기간: 2001.8~2002.4(9개월)
- 착 공: 2001년 8월 18일(하계비엔날레연인)
- 지시기관: Bio벤처기업지원센터
- 담당부서: 기획·개발·경영·생산